스튜디오 연주회… 아틀리에 전시회…

지역 예술인들 연습·작업실 개방 주민과 호흡

얼마 전 광주시 봉선동에 위치한 플루트 교습소 '이현경 에꼴 드 플룻'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잔잔한 플루트 곡들이 연주된 음악회에 참가한 5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 공간을 주민들에게 오픈,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연주회를 연 이는 플루티스트 이현경(38)씨다. 프랑스 등에서 공부하고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몇개월 전 개인 연습실 겸 교습실을 오픈 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했다.

그래서 열게 된 게 음악회였다. '사랑의 인사', '문 리버', '타이타닉'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곡과 자신이 좋아하는 플루트 곡들로 레퍼토리를 짠 음악회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관객들은 이 씨가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누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만들어갔다.

이 씨는 "아무리 간단한 공연이라도 준비하려면 꽤 많은 품이 들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아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플루트 독주회 뿐 아니라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최달남(63·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아파트로 배달된 안내문을 보고 참가하게 됐다"며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 음악회가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택가에 위치한 화가 조문현(42)씨의 작업실 역시 이웃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문화 공간이다.

작업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예술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개인연습실에서 음악회를 가진 플루티스트 이현경(오른쪽)씨.

조 씨는 올 초 문화마을 만들기 전문가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다. 마침 작은 건물을 마련, 1층을 작업실 우리문화미술연구소로 활용하고 있던 조 씨는 작업실 곁에 소박한 시설을 갖춘 작은 갤러리를 만들었다.

조 씨는 올해 이 공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갤러리 만들기' 전시회를 열기도 했으며 아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술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 씨의 작업실이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교육연구회가 꾸려져 회원들은 한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또 미술치료와 교육학을 전공한 조 씨의 아내 유봉자(41)씨가 관련 강좌를 열기도 한다.

조 씨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림도 감상하고, 작은 음악회도 꾸리는 등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 씨는 "작가들이 작업실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 작업은 결코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감상해주는 이들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며 "작업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들로부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베니니사 작 '타피오 비르칼라 볼레 콜렉션'

두 가지 색 담은 유리병

이탈리아 공예의 명가인 베니니사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 '타피오 비르칼라 볼레 콜렉션'은 유리병 연작으로 이탈리아의 전통 유리생산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작품제작을 위해 사용된 기법은 '인칼모(Incalmo)'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의 유리를 녹여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두 가지 색깔을 모아놓은 유리병은 색의 압도적인 느낌 때문에 마치 두 개로 분할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은 대량생산, 유통과 타협하지 않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고집하는 베니니사의 예술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작. 베니니사는 지난 1921년 밀라노 출신의 법률가 파올로 베니니와 앤틱제품을 취급하던 상인 지아코모 카펠린이 설립한 회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엔날레재단 대행체제 계속

빠르면 올해 말께나 이사장 선임될 듯…보조기획자 곧 선임

3개월째 공석인 광주비엔날레 재단 신임 이사장의 선임이 빠르면 올 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우진(광주시행정부시장) 비엔날레 재단 상임부이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공동예술감독이었던 신정아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현 시점에서)새 이사장을 영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 이사장과 신씨 사건과의 연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사람을 모셔서 잘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늦어도 검찰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신임 이사장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5월 실시한 비엔날레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비엔날레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등 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내년 비엔날레에서 오쿠이 총감독을 보좌할 큐레이터 4명을 오쿠이 감독이 추천함에 따라 이달 내로 선임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현재 보조기획자로 추천된 인사는 랜지스 호스코데(미술비평가·인도), 에블린 쥬아니(큐레이터·프랑스)씨를 비롯 김수자(설치·영상미디어 작가), 김현진(독립큐레이터)씨 등 4명이다.

이와 관련,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30일 예술소위원회를 개최, 내년 비엔날레 추진상황과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팝 프로젝트 콘서트 메모리 레인' 2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유럽에서 먼저 각광을 받았던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우선 그녀의 현란한 스캣(scat·재즈에서 가사 대신 아무 뜻도 없는 소리로 노래하는 창법)에 압도당하고 만다.

사람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녀의 스캣은 맑고 깨끗한 음색과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준다.

나윤선이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2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나윤선 팝 프로젝트 콘서트-메모리 레인(Memory Lan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문예회관이 우수작품 초청 기획 공연으로 준비, 기존 콘서트 보다 티켓 가격(3만원, 2만원, 1만원)을 대폭 낮춰 관객들이 부담 없이 즐기도록 배려했다.

이번 공연에서 나윤선은 '어린 물고기' '그리고 별이 되다' '익숙한 설레임'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 특히 '사의 찬미' '세노야 세노야'를 재즈 창법으로 구사, 관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전해준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출연하기도 했던 나윤선은 동양인으로는 드물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활동하며 재즈 가수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다.

나윤선은 지난 2006년에는 7개국 17개 도시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고 지난 6월에는 미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과 '세계 재즈의 메카'뉴욕에서 열린 '재즈 앳 링컨센터' 공연에 한국인 최초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김태수(피아노), 한형창(기타)씨 등 국내 유명 세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농악보존회 도둑잽이굿

광주시 무형문화재 8호…27일 압촌동 콩 종합센터

(사)광산농악보존회(대표 정득채)의 10번째 정기 공연이 27일 오후 1시 광주시 남구 압촌동 콩 종합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8호인 광산농악 전 과정과 함께 최근 새롭게 복원한 도둑잽이굿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둑잽이굿은 농악의 한 부분인 잡색놀이의 일종으로 탈을 쓰고 익살스런 대화와 연희를 보여주는 풍자극이다.

현재 도둑잽이굿은 전승이 중단된 상태로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광산농악 상쇠 정득채씨가 예전 도둑잽이굿 대사를 채보, 보관한 것을 토대로 다시 복원한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합길놀이를 비롯, 농악대의 기량을 선보이는 문굿,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굿, 집안의 액을 풀어주는 마당밟이, 온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서 함께 즐겼던 판굿 등 광산농악의 전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511-5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